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사례와 시사점*

이수정**

| 목차 |

- | | |
|------------------|-----------------|
| 1. 들어가며 | 1)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
| 2. 문헌 검토와 이론적 배경 | 여성의 한국 정착 과정에서 |
| 1) 난민 여성에 대한 논의 | 표출된 문제점 |
| 2) 선행연구 분석 | 2)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
| 3. 연구 설계 | 여성의 사회 인식 차이와 |
| 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 변화 양상 |
| 여성의 이주 여정과 정착 | 5. 결론 |

| 초록 |

본 연구는 2021년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전반과 그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 세대가 한국 사회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화와 그 원인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2~2024년 4회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면담과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긴급 수용은 빠른 초기 정착을 유도해 냈지만, 사회 적응 과정은 남성 가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여성의 취업 의사와 경력 전환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초반 취업 연계는 남성에 집중되고 여성은 한국어, 사회화 교육에 편중되면서 남성과 달리, 이주 여성은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7320)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sooislam86@gmail.com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는 ‘무슬림 여성은 가정에 머문다는 전제가 정착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 세대와 달리, 아동, 청소년은 성별과 무관하게 공교육에 빠르게 편입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언어장벽, 돌봄의 책임이라는 제약 속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였고, 딸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향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활용 가능한 진로를 선호하며 사회에 적응하였다.

주제어: 이주 무슬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주민 여성, 난민 적응, 이슬람

1. 들어가며

2021년 8월,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과 협력해온 현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특별기여자’라는 명칭 아래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Miracle Operation)’을 수행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당시 탈레반의 급속한 재집권과 정세 불안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이들을 무사히 입국시켜 전국 각지에 분산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391명이 정식 체류 자격(F-2 비자)을 부여받아 난민 심사 없이 입국하였고, 울산 등 주요 지역 사회에 정착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이처럼 정부 주도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이주와 정착은 일반적인 난민 유입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형태의 이주 정착 사례로 주목받았다(이수정, 2022). 그러나 이들의 정착 과정은 단지 물리적 안전의 확보에 머무르지 않았고, 언어, 문화, 종교, 젠더, 교육, 생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 사회와의 접점에서 갈등과 마찰을 드러냈다(이수정, 2022). 특히 이들 집단 속에는 기존의 난민 담론이나 이주 정책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가족 단위로 입국한 여성 구성원’, 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와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난민 여성이 존재한다. 이들 역시 현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있

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착 유형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정착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은 미비하다. 기존의 이주민 연구는 남성 중심의 경제적 이주자에 초점이 맞춰졌거나, 여성 이주민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 또는 노동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최운선, 2007; 김현숙, 2010; 양정혜, 2007; 황정미, 2009). 그에 반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같이 정치적 위협을 피해 가족 단위로 입국한 난민 지위의 여성들, 특히 종교적 정체성과 사회적 제약을 동시에 경험해 온 이슬람 여성의 정착 과정은 한국 내에서도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들의 젠더 위치성과 세대 간 경험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적응의 양상과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특히 입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남성과 여성의 취업 소개 및 제안, 일자리 취득과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과정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 배제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특별기여자’라는 명칭 하에 입국한 아프간 여성들은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은 어떤 과정과 양상을 띠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구조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가? 둘째, 동일한 여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인식하고, 적응하며,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있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울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과정에 있었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여성이라는 젠더를 고려하지 않고, 남성 중심의 사회 정착과 여성은 부차적 존재가 되는 현실을 되짚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총 4차례에 걸친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경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어머니들은 전통적인 젠더 역할과 이슬람적 가치관, 언어 장벽 속에서 가정 내 경제 활동 가능성을 모색한 반면, 딸 세대는 비교적 빠르게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접근하면서 미래의 직업적 비전을 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세대 간 인식과 실천의

차이, 그리고 그 변화의 맥락을 세밀히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2. 문헌 검토와 이론적 배경

1) 난민 여성에 대한 논의

난민 여성이 이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고, 남성의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주를 선택한다는 기본 통념에서 벗어나 특정 정책 대상이자 뚜렷한 조사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Callamard, 2002). 1990년대 난민 여성에 대한 연구적 접근은 개발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난민 여성의 자기 개발과 인권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서로 접점을 찾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난민 여성에 대한 시각은 불완전해질 수 밖에 없었다(Tuitt, 1996; Hathaway, 1991).

국제 난민 보호 체계는 2000년대 들어 성별 관련 박해를 난민성 심사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했고(UNHCR 2002), 성폭력/젠더 기반 폭력의 예방, 위험 경감, 대응을 전(全) 프로그램 주기에 통합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UNHCR, 2020). 이 관점에 따르면, 경유지와 수용시설에서의 안전 문제, 보육과 가사노동으로 대표되는 여성 활동이 언어 교육, 구직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문제, 임시 및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서비스 및 노동시장 접근을 지연시키는 문제, 종교나 복장과 같은 가시적 표식이 공공공간 접근과 행정 상호작용에서 불리하게 작동하는 문제 등이 서로 얽혀, 난민 여성에게는 이동의 영역, 정보의 습득, 권리의 행사 등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IOM, 2024).

이때 도착지의 제도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출신 사회의 규범과 관습이 남기는 흔적이다. 가부장적 질서가 강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일상적 생존을 위해 감내하고 협상해 온 규범적 체계는 도착지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제도, 노동시장, 공동체라는 장(field) 속에서 재배치된다(Shourbaji, 2017). 이러한 ‘가부장적 협상’은 단지 문화적 잔존이 아니라, 제도 인센티브와 사회적 기대, 종교·가족 네트워크의 재구성 속에서 다른 형태로 다시 짜여지는 일종의 전략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Kandiyoti, 1988).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이 특정 지역의 여성을 본질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도착지에서 여성들은 기존 규범에 도전하거나 재해석 하기도 하며, 때로는 거부하기도 한다. 더하여, 언어 교육, 직업 전환, 보육 인프라 같은 사회 제도적 조건이 뒷받침 될 수록 이러한 전통적 관습의 재해석 여지가 넓어진다. 다시 말해 출신 사회의 규범은 결정론적 변수가 아니라, 도착지의 제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화 가능한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난민 여성의 삶을 획일화하지 않으려면, 성별뿐 아니라 법적 지위, 인종 및 종족, 종교, 계급, 양육자 여부, 언어 자본 등이 교차하며 불평등을 증폭, 변형시킨다는 교차성의 통찰을 연구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Crenshaw, 1989; 1991). 동시에 여성이 선택하고 행하는 행위를 저항, 자유라는 획일적이고 이분법적 틀에 가두기보다,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윤리, 종교, 돌봄의 실천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다루어야 한다(Mahmood,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별 여성의 교육, 노동시장 참여, 지역사회 조직화, 종교공동체 내 역할 재배치는 가족과 공동체의 규범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미시적 동력으로 작동한다. 즉,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공동체의 미세한 재배치가 개인의 선택 공간을 넓히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정착 과정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통해 세부적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8월

한국 정부는 이른바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과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가족 391명을 긴급 이송했고, 이들을 난민 신청자 대신 ‘특별기여자’로 분류하여 장기체류를 전제로 한 정착 지원을 진행했다. 입국 직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방역 및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지역사회로 분산 정착했다. 이 사례는 긴급상황에서 제도의 신속한 유연화(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등)와 ‘국가 협력자’라는 자격 서사가 결합할 때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추진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 예멘인 난민 논쟁과 비교하면, ‘특별기여자’ 프레임은 ‘여성과 아동 보호’라는 이미지와 맞물려 수용 담론을 가속한 측면이 있다(Sheikh, 2022). 동시에 이 사례는 정착의 경로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재확인시킨다. 난민 여성의 이주와 정착을 둘러싼 젠더 불평등은 도착지에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출신 사회의 규범과 도착지의 제도, 그리고 개인의 행위성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장 속에서 구성되는 결과이며, 한국의 ‘특별기여자’ 사례는 이 세계적 담론과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을 또렷이 보여주는 경험적 창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2021년 한국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는 기존의 난민 수용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내에 유입된 이주민 집단이다(이수정, 2022). 이들은 ‘특별기여자’라는 명칭 하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지 않고, F-2 비자를 통해 난민 심사 절차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난민 정책과 이주 정책 사이에 위치하는 독특한 유형으로, 학계에서도 사례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특별기여자’라는 호명 방식과 명칭의 정치성을 분석하며 한국 사회 내 난민 인식의 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있다(백일순, 2022; 전의령, 2022; 문미리, 2022). 이들은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이 난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저항을 피해가며, 정부의 수용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난민 및 이주 정책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특별기여자의 지위와 권리, 복지 구조를 검토하는 연구가 있다(이지원·조정현, 2024). 셋째, 실제 특별기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적응 과정에 주목한 사례연구가 등장하고 있다(이수정, 2022; 구기연·백일순, 2023; 허숙 외, 2023; 최현정·김현숙, 2023).

이러한 연구들은 특별기여자의 수용과정, 행정적 대응, 사회적 갈등 등을 조명하고 있으나, 대체로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특별기여자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의 내부 구성과 세대, 젠더에 따른 적응 차이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 특히 여성, 더 나아가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 정착 경험은 아직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이주민 여성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결혼 이주, 돌봄노동, 여성 노동 이주와 같은 주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최운선, 2007; 김현숙, 2010; 양정혜, 2007; 황정미, 2009). 그러나 난민 상황에서 정치적 위협을 피해 가족과 함께 이동한 여성, 특히 무슬림 배경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 이주민에 대한 주류 담론은 대체로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다(이수정, 최두영, 2020). 이에 비해 가족 단위 난민 여성, 특히 어머니로서의 위치성과 역할 변화, 그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의 젠더화된 경험은 학술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에 속한다.

국제적으로는 이주민 여성의 적응 과정을 초국가적 정체성, 젠더 권력의 재편, 이주 공간에서의 젠더 역할 전환과 같은 키워드로 분석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Phizacklea, 1998; Al-Ali, 2002). 예컨대 아랍 및 무

슬림 배경의 여성들은 이주 사회에서 젠더 규범의 충돌 속에서 기존의 종교적 정체성과 새로운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긴장된 적응 과정을 경험한다(Shourbaji, 2017). 한국 사회 역시 종교적 복장, 여성의 노동 참여,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 등에서 이슬람 문화권 출신 여성과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돌과 조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이주민 여성이 겪는 적응과 변화는 단순한 수동적 내면화가 아니라, 이주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전략과 의미망의 재구성 과정이다. 본 연구는 특별기여자 여성들이 한국 사회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주체로 재구성되어 가는지를 그들의 언어와 경험을 통해 추적하고자 한다. 이주민의 세대 경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교육, 언어, 가치관, 사회 진출 등의 측면에서 세대 간 불일치를 주목한다. 특히 부모 세대가 종종 이주 전 경험(모국의 정치·문화적 조건)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반면, 자녀 세대는 이주 사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상이한 정체성과 경로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Parekh, 2000).

무슬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주 연구들에서는 종종 딸의 위치가 특별히 주목된다. 부모 세대가 이슬람 규범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위치를 강조하는 반면, 자녀 세대 여성은 공교육을 통해 보다 평등주의적 가치관과 사회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며, 종교성과 사회성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겪는다(Levitt & Glick Schiller, 2004). 한국 사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슬람 문화권 출신의 자녀 세대는 부모의 가치관과 한국 사회의 규범 사이에서 정체성의 이중성 혹은 혼종성을 경험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히잡 착용, 라마단 관행 등 종교적 표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이수정, 2022).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어머니와 딸이라는 동일한 여성 정체성 안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인식의 간극과 변화를 추적한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21년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여성 이주자들의 사회 적응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울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정착 과정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청취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정착과정 속에서 여성이라는 젠더의 배제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별기여자의 사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층위의 사례를 다양하게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하는 사회에 내재된 젠더에 관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하여,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가족 단위 이주자 내에서도 세대와 젠더,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적응 방식과 전략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동일한 여성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사회 인식 방법의 차이와 자기 구성 방식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 방식을 택하였다. 질적 접근은 이주 여성들이 경험하는 적응의 감정적·사회문화적 층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며, 응답자의 언어와 서사를 통해 경험의 내면성과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여성 이주자의 적응 과정을 단순한 정책 수혜나 언어 교육 여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주체적인 의미 재구성과 실천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연구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는 2022년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특별기여자 가구 중 어머니 세대 10명을 대상으로 집단인터뷰와 개별면담 방식을 혼

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중 3가구의 딸 세대와는 별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2차 인터뷰는 2023년 5월, 동일 가구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수행하여 1차 인터뷰로부터 1년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3차 인터뷰는 2023년 8월, 서울 서강대학교를 방문한 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울산 지역 외에서 교육적·문화적 경험을 축적한 사례로서 분석에 중요한 비교점을 제공하였다. 4차 인터뷰는 2024년 8월, 울산에 정착 중인 3가구의 딸 세대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성인이 된 이주 2세 여성들의 사회 진입 양상을 파악하였다. 기본적으로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는 매 차수 별로 동일한 인물들을 반복하여 인터뷰하였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모녀 세대의 인식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 방식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연령, 교육 수준, 종교적 신념, 경제 참여 여부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사례 간 비교 가능성이 있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와 관련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연구 목적을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하였으며, 인터뷰는 한국어 또는 통역을 통한 이중 언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문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집약하여, 문장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최대한 원문에 가까운 내용을 신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표 1〉 인터뷰 관련 정보 정리

	주요 대상	시기	인원
1차 인터뷰	어머니 세대 / 딸 세대	2022년 3월	13
2차 인터뷰	동일 가구 어머니 세대	2023년 5월	10
3차 인터뷰	딸 세대	2023년 8월	12
4차 인터뷰	성인이 된 딸 세대	2024년 8월	3
추가 인터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교육청 관계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2023년 3월~ 2024년 8월	4

또한 현장의 제도적 맥락과 정착 지원 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을 지원한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병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2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2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학교 배정, 언어·급식 문제 대응, 사회 서비스 연계 등 정착 초기의 실무를 담당한 핵심 인물들이었다. 더하여 여성과 함께 동행한 남편 배우자 1인의 인터뷰도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 역시 논문에 인용하였다. 이들의 증언은 응답자들이 언급한 경험의 제도적 배경을 보완하며,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정착 경험, 삶의 지향, 사회 진입 전략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정착 경험 파트에서는 한국 도착 당시의 심리 상태, 문화적 충격, 공공 공간에서의 경험을 묻고, 삶의 지향 파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대와 꿈, 현재의 목표와 생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진입 전략에서는 한국어 학습, 진로 계획, 경제 활동 의지 등을 통해 자율성과 실천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적응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이주 여성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어떻게 자신을 구성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동일한 질문을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 모두에게 제시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식에 따라 수행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전사 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와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 간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세대별로 주된 관심사와 전략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내 여성 이주자의 정착이 단선적이지 않으며, 연령, 배경, 기대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은 반복 인터뷰와 기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삼각검증(triangulation) 방식으로 확보하였으며 (Campbell and Fiske, 1959),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후 의견 확인을 실

시하여 분석 해석의 정합성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서사성과 해석 가능성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사회 적응을 다각도로 조망하였으며, 특히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그 내면의 경험과 실천을 조명함으로써 이주민 연구의 젠더화, 세대화된 접근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이주 여정과 정착

1)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한국 정착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

2021년 8월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가족들은 정부가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로 분류하며 긴급 정착 지원과 체류 합법화를 병행한 사례로 기록된다. 정부는 총리훈령 제794호(2021.11.1.)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해 주거, 교육, 취업 연계를 밀도 있게 추진했고, 법무부 보도에 따르면 거주(F 2) 부여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빠르게 가동되었다. 동시에 언론은 ‘특별공로’ 서사가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음을 지적했다(한국일보, 2021).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과 담론의 결합은 한국 맥락에서 보기 드문 속도의 초기정착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젠더 차원의 설계 결여와 성(性)역할 전제가, 특히 여성의 행위성과 생애 주기 설계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주, 정착을 둘러싼 정책 설계와 실행 담론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초기 프로그램 소개에서는 가구 단위(가장 중심)의 서술과 운영이 두드러졌고, 여성 본인의 취업 의사·경력 전환 계획을 전면에 두는 논리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젠더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가족은 남성 부양자와 피부양

자로 구성이라는 전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성(性)인지 접근과 간극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정착 과정에서 여성에게 직업 소개를 하거나 취업 의사를 묻지 않았냐는 질문에 A씨(50대 주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도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우리 여자들에게 일을 하겠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혹시 선생님이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여성들은 초기 정착 단계부터 취업과 관련한 권유를 받거나, 방법을 교육 받지 못하였다. 물론, 정착 초기 단계로 한국어를 비롯한 어학 능력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었지만, 남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제안 받은 내용과는 사뭇 차이가 나는 상황임은 분명하였다. 남성들은 실행 단계에서도 남성의 사회, 경제 활동을 우선하는 지원이 구조적으로 나타났다. 2022년 2월 울산 정착 당시 보도는 ‘29가구 157명’이 집단 이주했고, ‘가장 29명’이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우선 취업했다고 전했다 (Korea Joonang Daily, 2021). 당시 KBS나 경향신문 등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울산에서 ‘거의 절반’ 수준의 대규모 취업 연계가 이뤄졌다고 보도했지만, 성별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인터뷰에 따르면, 취업한 29명 중 28명이 남성이었고, 한 명만 여성이었다. 이 여성의 경우, 남편의 나이가 이미 63세를 넘었기 때문에 노령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여성이 대신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또한, 이 여성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도 우리 정부가 주도로 설립한 기관에서 근무했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써 취업이 가능했었다. 이러한 흐름을 연결해 보면, 초기의 취업 연계가 가구 대표(통상 남성)를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고,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여성은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남성은 취업 연계라는 성별분업적 경로를 제도적으로 고착화

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무슬림 여성은 당연히 가정에 머무른다’는 문화주의적 전제가 정책, 실무 담론에 스며든 흔적도 보인다. 이는 출신 사회의 젠더 규범을 있는 그대로 ‘정책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사례로서, 여성의 경력, 의사, 역량 전환 가능성을 제도적 설계 단계에서 축소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로 실무담당자들은 왜 여성이 초기 취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가라는 물음에, 여성은 우선 가정을 돌보며 집안에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고, 여성의 취업까지 맞춰줄 수 있는 시간이나, 상황적 여력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관련 관계자 인터뷰 결과). 가부장적 규범과의 ‘협상’은 도착지에서 재구성되며, 제도 설계는 그러한 협상의 지형을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된다. 따라서 문화주의적 전제를 정책에 직접 이식하는 접근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개별 여성의 이력, 의지, 제약을 묻고 지원을 맞춤형하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법대를 다니던 부인을 둔 B씨(20대 남성)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제 아내가 더 많이 일하고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다라면 더 잘 될 수 있었던 아내인데, 탈레반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진술은 가부장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가정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착 초기 진행된 획일적 취업 의사 확인과 여성의 배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시도 자체를 막아버린 상황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전제는 여성에게 더 많은 ‘사회화 및 적응 교육’의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남성이 조기 취업 연계로 한국어 및 적응 교육 참여 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여성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강도로 한국어 및 사회 적응 교육에 투입하는 양상이 나타

났다. 교육 접근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을 노동시장 전환으로 연결하는 경로 설계가 결여되면 ‘교육의 여성화’가 곧장 ‘무급/저임금 돌봄과 가사의 연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영역에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한국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관찰된다. 울산 교육청은 별도의 한국어 집중반 제도로 초기 언어 장벽을 완화했고, 실제로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한국식 교육과정(일반학급과 한국어 보충 교육)을 병행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의 반대 집회와 ‘자원 배분’ 논쟁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의 필요를 환기시켰다(Korea herald, 2021). 그럼에도 현장 교사 및 행정의 조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편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점은, 여성 청소년에게도 교육권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창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정착 1~3년 차로 접어들면서 모녀 간에 한국 사회, 자문화 이해에 대한 관점 차가 커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청소년은 학교, 또래 관계를 바탕으로 언어, 규범, 기대치를 빠르게 습득하는 반면, 성인 여성은 활동 영역이 가정에 한정됨에 따라, 대체로 공적 영역 진입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공동체로 이주하면서 여성이 사회로 진출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이미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와 같은 공동체의 암묵적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 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이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세대 간 문화적 격차는 반드시 갈등으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가족 내 의사결정과 가관 조정의 ‘마찰면’을 넓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연구는 부모-자녀 간 문화적응 불일치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감정노동을 증가시키며, 맥락에 따라 갈등 또는 상호학습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례에서도 모녀가 서로 다른 속도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종교, 복장, 교우 관계, 진로를 둘러싼 협상이 일상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정착 경험은 한국의 신속한 제도적 유연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도, 이주와 정착의 젠더화 된 경로가 얼마나 쉽게 재현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의 주체성과 취업 의사를 사전 파악하고, 문화주의적 전제를 정책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교육에서 취업의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성인 지 관점에서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모녀 세대의 적응 속도 차이를 가족, 학교, 지역 차원의 동시 개입으로 완충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성은 가정, 남성은 노동’이라는 구도를 넘어, 여성 자신이 노동, 시민, 종교, 가족의 각 영역에서 어떤 삶을 설계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출 때, 특별기여자 정책은 비로소 ‘긴급 수용’에서 ‘사회 정착’으로 나아갈 것이다.

2)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사회 인식 차이와 변화 양상

2022년 3월에 진행된 1차 심층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들, 특히 어머니 세대의 정착 초기 경험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로 채워져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탈레반 정권의 복귀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말의 안도감을 표했지만, 그 안도감은 급격히 변화한 생활 환경과 낯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곧 두려움과 단절의 감정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언어 장벽, 종교적 실천에 대한 제약, 생활의 자율성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들은 초기 한국 사회와의 관계 맺음에서 거리감을 느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세대에 따른 여성의 사회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어머니 세대에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둘째,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어떤 꿈이 있었고, 지금은 그 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생활 만

족도나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착과정 속에서 개인이 겪는 자아 정체성의 전환, 기억과 기대의 균열, 그리고 실질적 욕망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매우 유사한 정서를 표현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언어 소통에 적극적이었던 세 명의 응답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C씨(50대, 가정주부)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을 살리던 손으로 지금 기계를 만지고 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이 발화는 한국 사회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직업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응답으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사회적 위상 하락에 대한 심리적 충격과 수치감을 담고 있다. 남편이 이전에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손을 가졌지만, 지금은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이상의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는 이주 이전의 직업적 자부심이 이주 이후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치 없는 노동으로 전환되었을 때 발생하는 계층적 박탈감을 보여주며, 이주 과정에서의 위계적 경험이 젠더와 가족 단위에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드러낸다.

D씨(40대, 가정주부)의 진술은 더욱 극단적으로 내면화된 체념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였어요. 탈레반이 존재한 순간부터 모든 꿈이 사라졌어요.”

이 응답은 희망이 사라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절망적 증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꿈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은 단순히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의 삶에 대한 자율성의 부재를 드러낸다. 탈레반이라는 정치 체제는 단지 여성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주체로서의 자격마저 박탈해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진술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회고적 통찰이자 절제된 분노로 해석할 수 있다.

E씨(40대, 가정주부)는 정치적 시간성과 세대의 단절을 명확히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탈레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꿀 수 없었지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미국이 있었고, 탈레반이 없어졌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야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탈레반이 왔어요. 한국에 오지 못한 제 큰 아이는 다시 부르카를 입고 다니고, 집 안에 있어야 해요.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이 진술은 한 여성의 생애사적 경험이 어떻게 반복적인 억압과 회복, 그리고 다시 퇴행의 역사로 구성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탈레반의 재집권은 단지 국가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삶을 단절시키는 역사적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 오지 못한 큰딸에 대한 언급은, 이주가 가족 전체를 구제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이주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박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불완전한 구원의 서사를 보여준다.

이들 응답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여성 이주자가 살아온 경험과 감정을 통해 이주 이후의 정착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귀중한 증언이다. 특히 여성의 입에서 나온 ‘꿈’이라는 단어의 의미 변화는 정치적 환경, 젠더 권력, 교육 기회의 유무, 그리고 가족 구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그들에게 ‘꿈’은 곧 사회적 자율성과 직결된 단어이며, 한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실현이 제한된 또 다른 시스템이기도 하다.

요컨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어머니 세대의 정착 초기 경험은 단순한 문화 충격이 아니라, 삶의 연속성 위에 갑작스럽게 놓인 불확실성의 층위였으며, 이 속에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기 위한 감정적, 문화적, 실천적 자원을 탐색하고 있었다. 이 장의 다음 부분에서는 딸 세대의 진술을 통해, 동일한 가족 단위 안에서 구성되는 세대 간 경험과 적응 전략의 차이를 이어서 분석할 것이다.

어머니 세대가 한국 사회 정착 초기에서 감정적 상실감과 현실적 좌절감을 중심으로 반응하였다면, 딸 세대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도 상이한 전략과 태도를 보이며,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적응 경험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딸 세대의 경우,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 환경과 점진적으로 접촉하며,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자기 기획(self-projection)을 구체화해 나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나이 차이나 언어 습득 속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대의 정치적 기억, 교육적 자원, 사회적 기회 접근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복합적 현상이다(김은정, 2009).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진행된 3차, 4차 인터뷰에서 딸 세대 응답자들에게는 어머니들과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즉,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딸 세대가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사회 진입 전략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응답은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실용적 직업 선택에 집중된 계획이었다. 12명의 여학생 중 8명이 간호대학 진학을 희망하였으며, 그 이유는 “간호 기술은 한국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단지 직업 선호의 문제를 넘어, 이동 가능성과 국가 간 통용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일부 학생은 컴퓨터 공학을 희망하였고, 이 역시 기술직이라는 특

성이 강하며, 지역적 제한 없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로 설정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경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기 확립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딸 세대의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초기에는 히잡 착용, 라마단 중 급식 거부, 예배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갈등이 학교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성을 완화하거나 융통성 있게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행보는 히잡 착용의 완화, 학교 생활 중 예배를 진행하지 않는 것, 취업, 진학 활동의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무슬림 여성이라는 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적 공간 내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실천 방식을 조정하거나, 일부 규범을 내면화된 신념으로 환원시켜 사회성과 공존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단순히 '통합'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과 사회적 관계성 사이에서 협상하는 새로운 정체성 실천 방식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별 인식과 직업 선택의 연관성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학생들이 의사를 장래희망으로 언급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자아이들은 간호사를 꿈꾸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가족 내에서도 간호사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더해,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승된 젠더 질서와 직업적 기대가 중첩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시간이 지나며 일부 딸 세대는 교육을 넘어 실제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더 넓은 진로를 계획하고 있었다. 4차 인터뷰 당시에는 이미 성인이 되어 다문화센터에서 통역 및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F씨(21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통역 일을 하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여기 다문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도 자꾸 저한테 방송통신대학이라도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고, 저도 더 많이 공부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통역을 돕고 다문화 가정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발언은 정착 이후 자율성과 진로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준다. 당장의 생계와 직업 경험, 그리고 장기적 학습과 전문성 추구가 긴장과 보완 관계 속에서 병존하고 있으며, 이는 딸 세대가 단지 한국 사회에 ‘순응’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목표와 실천을 조정하며 사회적 가능성을 확장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딸 세대의 적응 양상은 베리(1997)의 문화적응이론에서 말하는 ‘통합’ 혹은 ‘동화’ 범주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다 섬세한 차원의 분석이 요구된다. 이들은 모국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미래를 특정 국가나 문화에만 고정시키지 않고, ‘이동 가능한 주체’로서의 자기 상상을 전제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화 적응을 넘어서는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 세대가 생활 속 제한과 실망, 그리고 낮은 자율성 속에서 점진적 통합을 실천하고 있다면, 딸 세대는 교육과 언어, 또래 관계를 통해 빠르게 사회로 진입하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단지 연령이나 세대 차이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역사적 경험의 간극, 문화 자원의 접근성, 그리고 한국 사회 내에서 주체가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딸 세대의 실천은 단일한 ‘정착’의 모델이 아니라, 복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하고 전략적인 정체성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1년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운데 여성 구성원을 중심으로, 울산 지역을 사례로 하여 정착 초기부터 3~4년 차에 이르는 경험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 ‘특별기여자’라는 명칭과 긴급 수용이라는 제도적 프레임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착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착 계획 수립과 진행 단계 전반에서 남성 가장 중심의 가구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며 여성의 주체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초기 취업 연계는 가구 대표(대체로 남성)를 축으로 조직되었고, 여성은 한국어·적응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깊이 편성되면서 교육은 ‘여성의 몫’, 고용은 ‘남성의 몫’으로 분절되는 경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은 가정에 머문다’는 문화주의적 전제가 일부 정책과 실무 담론에 스며들며 여성 개인의 경력, 의사, 역량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동시에 정착의 실제 양상은 단선적이지 않았다. 출신 사회의 젠더 규범과 도착지 제도의 교차, 그리고 개인의 행위성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경로가 형성되었다. 어머니 세대는 언어 장벽, 돌봄 책임 속에서 일상적 생존과 가족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종교적 실천과 공적 공간 참여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딸 세대는 공교육과 또래 네트워크를 매개로 사회 규범과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며, 간호 및 정보기술 등 ‘이동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전략적으로 선호하는 등 자기 삶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설계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복장, 급식, 예배 공간 등)은 시간이 흐르며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는 통역이나 지역 실무 등으로 사회 참여의 발판을 넓혀 갔다.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 가능한 제도적 자원과 사회 진출 및 정착 방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그리고 가족 내부 협상 구조의 차원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문화 적응을 ‘수용/거부’의 이분법이나 특정 범주로 단순화하기 보다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실천과 경로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 개인도 공적(학교·노동)과 사적(가족·종교) 영역에서 상이한 전략을 병용하며, 그 조합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입국 및 초기 평가 단계에서부터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여성의 취업 의사, 경력, 제약을 정밀 파악하고, 상담과 사례관리 체계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시민과의 교류, 취업을 통한 사회 안착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적 실천과 교육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표준 운영 지침을 정비하되, 모녀(또는 부모-자녀) 동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문화 적응 격차를 완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슬림 여성은 가정적’이라는 전제가 암묵의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종합하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정착 경험은 한국 사회가 ‘수용의 신속성’에 이어 ‘정착의 공정성’과 ‘권리의 보편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놓는다. 긴급 상황에서 시작된 제도적 유연성은 이제 여성 개인의 행위성과 선택을 중심에 놓는 상시적 정착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격’의 서사를 넘어 ‘존엄’과 ‘권리’의 언어로 정책을 재구성할 때, 그리고 여성 스스로 노동, 시민, 종교, 가족의 각 영역에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공정하게 배분할 때, 특별기여자 정책은 예외적 사건의 관리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성숙한 이행을 견인하는 공공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24. World Migration Report 2024, Chapter 6 “Gender and Migration: Trends, Gaps and Urgent Action,” Geneva: IOM, (eds, Marie McAuliffe & L. A. Oucho)
- UNHCR, 2002.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 Gender Related Persecution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Its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GIP/02/01), 7 May 2002.
- UNHCR, 2020. UNHCR Policy on the Prevention of, Risk Mitigation, and Response to Gender Based Violence (GBV), Geneva: UNHCR,
- Korea JoongAng Daily, 2021, “ ‘Operation Miracle’ Complete with 390 Afghan Arrivals,” 27 Aug 2021.
- The Korea Times, 2021, “Afghan ‘Special Contributors’ in Korea,” 29 Aug 2021.
- Reuters, 2021, “In South Korea, Afghan Evacuees Find Hope in Their New ‘Special Merit’ Status,” 2 Sep 2021.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 “군,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 ‘미리클 작전’ 성공적 수행”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92246&pageIndex=&startDate=2024-03-10&endDate=2025-03-10&srchWord> [검색일: 2025.03.15.]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 “아프간 특별기여자 격리해제...정착준비 시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92955&tongYeog=Y&pageIndex=&startDate=2024-04-07&endDate=2025-04-07&srchWord=#policyBriefing>
-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2022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 190-192
<https://www.korea.kr/fcatalog/access/ecatalogt.jsp?callmode=normal&catimage=&eclang=ko&Dir=1115&um=s&start=189> [검색일: 2025.03.15.]
- 한국일보 2021 “ ‘조력자’ ‘특별공모자’ ‘특별기여자’ 아프간 입국자는 왜 이름이 많을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715030000606>
- Al-Ali, Nadje, 2002. *Gender Writing - Writing Gender: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a Selection of Modern Egyptian Literatur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pp. 5 - 34.
- Callamard, Agnès. 2002. "Refugee Women: a Gendered and Political Analysis of the Refugee Experience." In *Global Changes in Asylum Regimes*, ed. Danièle Joly, 137 - 153. London: Palgrave Macmillan.
- Campbell, Donald T., and Donald W. Fiske. 1959.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the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2): pp. 81 - 105.
- Crenshaw, Kimberlé.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 139 - 167.
- Crenshaw, Kimberlé.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 - 1299.
- Hathaway, James C. 1991. *The Law of Refugee Status*. Toronto & Vancouver: Butterworths Canada.
- Phizacklea, Annie. 1998. "*Migration and globalization: A feminist perspective*." *The new migration in Europe: Social constructions and social realit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pp. 21-38.
- Kandiyoti, Deniz. 1988. "Bargaining with Patriarchy." *Gender & Society* 2(3): 274 - 290.
<https://doi.org/10.1177/089124388002003004>
- Kofman, Eleonore, et al. 2000.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Employment, Welfare and Politics*. Routledge.
- Levitt, Peggy, and Nina Glick Schiller.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pp. 1002 - 1039.
- Mohanty, Abhijit. 2023. "The Hijab Controversy: The Conflicting Nature of Right to Religion." *Indian Journal of Law & Legal Research*, 5(2).
- Parekh, Bhikhu.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Sheikh, Farrah, Jin-han Jeong, and Kangsuk Kim. 2022. "From Sex Offenders to National Heroes: Comparing Yemeni and Afghan Refugees in South Korea." *Social*

6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사례와 시사점

Inclusion 10(4): 200 - 210.

- Shourbaji, Amira A. 2017. "We Are The Hyphen In-between" Muslim Arab-American Women and Education: Intersecting Gender, Culture, and Religion. Diss.
- Tuitt, Patricia. 1996. *False Images: Law's Construction of the Refugee*. London: Pluto Press.
- 구기연, 백일순. 2023. "환대의 관점으로 본 한국 사회의 무슬림 난민: 예멘 난민과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례 비교연구." 『공간과 사회』 33(3): 8-49.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또래관계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85-129.
- 김현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5-159.
- 문미리. 2022.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언론보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3(4): 5-39.
- 박보라, 이수정. 2022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한국 사례 모색: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4): 101-116.
- 백일순. 2022.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본 난민 담론의 형성과 변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관한 국내 신문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4(2): 151-169.
- 양정혜. 2007.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 47-77.
- 이수정. 2022. "한국 사회의 무슬림 이주 동의와 수용-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울산 교육현장 정착과정과 갈등." 『디아스포라연구』 16(1): 265-299.
- 이수정, 최두영. 2020. "사회과학을 위한 양적 텍스트 마이닝: 이주, 이민 키워드 논문 및 언론기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118-127.
- 이지원, 조정현. 2024. "국내 재정착난민 제도와 특별기여자 제도에 대한 고찰 - 미국의 특별이민비자(SIV)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국제법무』 16(1): 1-37
- 전의령. 2022. "'위험한 무슬림 남성'과 '특별기여자': 전 지구적 인도주의 담론과 포스트 9.11체제의 공모." 『아시아 리뷰』 12(1): 3-31.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차유진, 정지수. 202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한국사회 정착 경험에 관한 연구: 부적응 경험과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3(3): 37-72.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 141-181.
- 최현정, 김영순. 2023. “한국어교사의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9(5): 205 - 229.
- 허숙 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의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6(2): 119-142.
-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9(2): 1-37.

Abstract

Social Adaptation of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in South Korea
– Cases and Implications of Women

Yi, Soojeong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process of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for female Afghan special contributors who entered Korea through ‘Operation Miracle’ in 2021, along with the social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is process. It particularly sought to trace the changes in attitudes and perspectives toward Korean society between the mother and child generations and their underlying causes. To this end, interviews with Afghan Special Contributors and stakeholder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across four sessions from 2022 to 2024. The findings revealed that while the emergency reception of Afghan Special Contributors facilitated rapid initial settlement,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was male-headed household-centered, neglecting women's employment intentions and career transitions. Specifically, initial employment linkage focused on men, while women were concentrated in Korean language and socialization education. Unlike men, migrant women thus had reduced access to opportunities enabling active social participation.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assumption that ‘Muslim women stay at home’ being reflected in the settlement program design. Unlike the limitations faced by the mother generation, children and adolescents adapted to Korean society quickly upon being integrated into public education, regardless of gender. Consequently, mothers adapted to Korean society within the constraints

of language barriers and caregiving responsibilities, while daughters adapted in a more liberated environment, preferring career paths applicabl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 words: Migrant Muslim,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Migrant Women, Refugee Adaptation, Islam

- ▮ 투 고 일 : 2025년 9월 14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10월 1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14일

